



우주인 에수를  
만나다

김병숙 지음

2011 무화과

UFO 뉴에이지 씨리즈 1권

##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  
병  
숙  
저  
음

무학과

##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출간일 2014년 5월 31일(초판)  
2016년 8월 30일(교정판)  
2018년 6월 (POD판)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 무화과 2014년 5월

E-Mail [jesusufo2@gmail.com](mailto: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http://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http://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http://jesu-ufo.com)

ISBN 979-11-952921-0-3



하늘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예수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붓다

신은 당신 밖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시리우스 우주인

우리는 순수한 의식만으로(육체가 없이)존재할 수 있다....아크투루스 우주인

일심(一心)하면 신이 너희 머리 위에 내린다.....환단고기

인간이 하늘(신)에 이른다.(人-乃-天).....동학(東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고, 가장 우매한

사람이라도 도심(道心)이 없을 수 없다.....공자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신)의 성전(聖殿)이다.....사도 바울



### < 서문 >

1957년에 미국의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스트랜지스 박사를 만난 금성인 발 토어는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서 UN의 특수회원들과의 접촉도 있었다 한다. ‘미 국방성의 우주인’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된 미국 최고위자들과의 접촉은 뉴에이저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위의 사진은 같은 시기에 미 국회의사당 상공에 나타났던 UFO들의 모습이다.

20세기의 첫해인 1901년부터 제자들을 모아 가르친 증산 강일순 선생도 우주인의 지구환생이었으며,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아쉬타 사령관으로 돌아와 20세기 동안의 뉴에이지 현상을 지휘했다.

증산 강일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 줄이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변산 만한 불덩어리가 땅에 구루면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우주인 크라이온도 자신들이 목성 근처에서 일하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소행성 하나를 파괴했다고 한다. 미국의 부시 정권 때 소행성의 접근을 발견하고 미국 정부에서 그 사실을 발표하려 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위협의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었는지 미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는 강원도 오대산에 5만의 진신(眞身) 부처님들이 나타났었다는 기록이 있다. 5만이라는 숫자는 불교식 과장된 숫자라 해도, 진신이라는 말은 진짜 부처들이 나타났었다는 뜻이다. 그 설화에 착안해서 강원도 산골마을에 UFO와 함께 나타난 예수, 붓다 그 외의 역사적 스승들의 이야기가 줄거리다.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았음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영화나 만화영화로 만들어지면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SF소설 하나를 만들어본 것입니다.

2014년 5월

저자 김병숙

(사용된 인용문들과 조각그림들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차후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목차 >

- 1. 에녹은 어디로 갔을까?.....9
- 2. 첫 번째 만남.....16
- 3. 믿을 수 없어!!.....29
- 4.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만나다.....36
- 5. 히말라야 궁전으로.....45
- 6. 모선(母船)에서의 아테네 학당.....59
- 7. 다윈과 멘델, 진화론을 말하다.....83
- 8. 원두막에 내려온 예수님.....198
- 9. 감각명상과 수퍼맨.....114
- 10. 창세기의 시대로.....121
- 11. 플레야데스와 황소별자리.....136
- 12. DNA와 영혼 유전자.....145
- 13. 무위지치(無爲之治), 신시개천(神市開天).....162
- 14. 우주인 고타마 붓다와 관세음보살.....170
- 15. 석굴암과 관세음보살.....192
- 16. 공룡시대로의 여행.....203
- 17. 은하수 은하의 탄생.....218
- 18. 광자 에너지와 ‘신의 대원리’.....231
- 19. 공자님의 구슬.....240
- 20. 우주 미아의 불행.....258
- 21. 한반도의 르네상스.....270
- 22. 노자, 장자, 아미타불.....288
- 23. 시온산과 고용된 일꾼.....307
- 24. 루시퍼와 자유선언.....323
- 25. 아틀란티스와 레므리아.....338
- 26. 에덴동산에 가다.....358
- 27. 대홍수와 바벨탑의 붕괴.....380
- 28. 신시 시대와 태백산.....395
- 29. 신시개천, 신단수 아래서.....414

30.계시록과 하느님의 일곱 영.....430

31.블랙홀, 화이트홀, 평행우주.....445

32.하늘을 날아다닌 피라밋의 돌들.....462

33.가브리엘 프로젝트.....482

34.아기예수, 소년예수, 청년예수.....499

35.갈릴리 호숫가에서.....508

36.진화하는 지구와 지구인.....531

37.지구 내부세계로 가다.....557

38.교회 뒷자리에 내려온 예수님.....575





### < 1 > 예녹은 어디로 갔을까?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남의 종교를 가져다가 훌륭히 소화해 낼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본토에서보다 더 발전시켜 우리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불교가 그랬고 유교가 그랬고 현재의 기독교도 그렇다. 도시의 밤거리는 빨간 십자가들이 우후죽순 처럼 솟아 있고 농촌도 웬만큼 큰 동네에는 어김없이 교회당이 들어서 있다. 우리 이야기의 출발지인 임실마을도 그 예외는 아니다.

임실(臨實)이라는 마을 이름이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희는 그것이 틀림없이 오대산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실마을 앞을 지나 흐르는 오대천이 바로 오대산에서 발원된 작은 강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뚜렷한 고증적 자료는 찾지 못한 상태다.

임실마을은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면소재지의 마을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오대천과 나란히 정선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하루에 몇 번씩 완행열차의 기적소리와 그 힘찬 철마가 달리는 문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강원도 정선 하면 산골 중에도 산골이라는 감을 주는 지명이지만 이 지역에서 채굴되는 무연탄 때문에 일찍이 철도가 놓이고 태백과 사북을 경과해서 정선을 지나 종점인 구절읍 까지 달리는 철도가 놓인 것이다.

임실마을은 정선을 지나 더 북쪽에 있는 가리왕산의 새끼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다. 2백여호의 인가가 있고 유서 깊은 향교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역사는 꽤 깊은 것 같다.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마을의 역사를 여쭙본 결과 고구려 시대까지 역사적 뿌리가 닿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선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고, 정선으로부터 백여리 더 북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조선조 시대에 정선 사또로 부임했던 사람이 은퇴해서 살면서 번성하게 된 마을이라고 한다. 그 사또의 부임기간 동안에 정선에 국립교육기관인 향교가 세워졌고, 이 임실마을의 향교는 사또가 은퇴한 후 개인서원으로 세워진 것이라 한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임실(臨實)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오대산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신희는 결론 짚은 것이다. 오대산이란 어떤 곳인가? 삼국유사에 의하면 5만의 진신이 나타났었다는 곳 아닌가? 오만(五萬)의 진신(眞身)이란 오만명의 진짜 부처들이 나타났었다는 말이다. 저 오대산에 말이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의 오대산은 우주인들의 임시 기착지가 있었던 곳이 분명하지 않은가? 요즘 UFO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신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임실마을 앞으로는 오대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맑은 물이 오대천이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다. 임실보다 더 외진 곳에 있는 산골마을 몇을 지나 흘러왔지만 아직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른다. 물가 평지를 따라 철로를 놓았기 때문에 임실마을 바로 앞을 철도가 지나가고 마을에는 작은 간이역이 있다. 역에서 가까운 곳에 면사무소가 있고 그 옆에 우체국, 그리고 우체국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 뒷편 완만한 산비탈에 교회건물이 우뚝 서 있다. 200여호가 넘는 가옥들은 시골집답지 않게 말끔한 양옥집도 꽤 섞여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희는 교회 박목사의 외동딸이다. 여고생이었던 그는 지난 3월에 2학년을 마친 후 학교를 자퇴했다. 처음에는 박목사 내외 모두 극구 말렸으나 딸아이의 고집스런 개성을 존중해서 할 수 없이 허락했다. 그러나 검정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따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한 것은 아니다. 이상하게 거칠어지는 친구들,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질 않나, 학교 구석구석에서 선생님 모르게 치고박고 싸우지를 않나, 후배 어린 학생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굴종을 강요하는 등, TV에서 본 장면들이 시골학교에서도 벌어진다는 게 싫어서다. 그런 유행에 끼지 못하는 신희를 친구들은 새침떼기라고 놀리지만 신희는 결코 소극적인 아이는 아니다.

하기야 요새 학교라는 게 오히려 나쁜 짓이나 배우기 좋은 것 같드라만.....

체념처럼 내뱉은 박목사의 결론이었다. TV뉴스에서 학교의 폭력현장을 보며 개탄했고 따돌림행위가 유행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우려했던가? 그렇다

고 신희가 대학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홀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자기가 가고싶은 전자공학이나 전산학과에 꼭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목사 부부가 보아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가문에 콩나듯 볼 수 있을 뿐이다.

저렇게 공부도 안하면서 어떻게 대학엘 간다는 건지 원.....

자퇴하기 전에도 방학만 되면 남자 아이들처럼 배낭을 둘러메고 혼자 남한 어디라고 안간 데가 없을 정도로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던 아이다. 아무튼 안전한 목사부부의 딸답지 않게 꽤나 튀는 데가 있는 아이다.

교회 침탑의 다락방은 사방으로 창이 나 있어서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소통하고 시야가 확 트이는 재미에 신희가 즐겨 오르는 장소다. 사방의 창문을 다 열어제끼니 5월 아침나절의 신선한 공기가 다락방 가득히 들어온다. 신희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의자의 먼지를 대강 닦고 앉아 성경을 펼쳐든다. 성경을 읽다가 덮어놓고 공상에 잠긴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서른살 되던 해 4월 5일에....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나는 환상 중에 북쪽에서 폭풍을 몰고 오는 큰 구름을 보았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주위에는 찬란한 빛이 비취고 있었으며 그 불 가운데는 별갈게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 네 생물 같은 형체가 나타나 있었다.....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네 개의 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었는데 그것은 각 생물 곁에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모양과 구조는 다 똑 같았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으며 바퀴 둘레는 높고 무섭게 생겼고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곁에 있는 바퀴도 움직이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따라서 들렸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으며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바퀴도 따라서 들렸다. 이것은 생물들이 그 바퀴를 조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들릴 때마다 바퀴도 꼭 그대로 되었다.....<sup>1)</sup>

1) 성경 '에스겔서' 1장

이건 틀림없이 UFO에 관한 이야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읽는 UFO에 관한 책을 처음 빌려본 후 UFO에 푹 빠져있는 그녀다. 어젯밤에도 아버지 박목사와 한바탕 말씨름을 했다. 바로 위의 에스겔서를 가지고. 신희는 틀림없이 UFO를 묘사한 것이라 하고 아버지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꾸지람을 하셨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타고 하늘로 사라졌다는 불마차도,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는 승천이야기도, 야곱이 한 밤중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모두가 UFO에 관한 이야기에 틀림없어.....!! 혼자서 아무리 우겨도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내다보는데 저만치 교회정문으로 정태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 보인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약간 저는 그는 이 마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신희하고 똑같이 그도 지난 3월에 학교를 자퇴했다. 하기야 어려서부터 소꿉친구인 둘이 공모한 일이긴 하지만.

걸음걸이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약골이어서 자주 병치레를 하는데다 매일 새벽 6시 차를 타고 군청소재지인 정선에 있는 학교에 등교한 후 과외학습을 하고 밤 열시에 버스 막차를 타고 다시 백리에 가까운 길을 시달리며 귀가하는 아들이 보기 안쓰럽기는 했었다. 또 탄광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기차도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정태의 부모도 할 수 없이 아들의 자퇴를 허락한 것이리라. 농과에 가서 수경재배를 공부하겠다고니 그 실력 가지고 혼자 공부해도 불기야 하겠지.....

다 큰 처녀총각 같은 아이들이 항상 붙어다니고 자퇴까지 함께 한 사실에 대해서 쭈군거리는 이웃들도 있지만 코흘리개 때부터 단짝이었던 아이들이니.....너그러이 봐주는 어른들이다.

"나 여기 있어!!"

신희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를 친다. 교회로 들어서던 정태도 그럴줄 알았다는 듯이 빙긋 웃더니 어느새 첨탑 층계를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약간 숨이 찬 채 다락방에 들어서는 그의 손에 웬 책 한권이 들려있다.

"이 책 아직 못 읽어봤지?"

"뭔데?"

"<숨겨진성서>라는 책인데 여기 에녹<sup>2)</sup>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에녹도 UFO를 타고 하늘로 사라진 거야!!"

"그래?....."

"자, 여기를 읽어 봐. 아니 내가 읽을게."

내가 365세 되던 해 둘째 달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 키가 매우 큰 두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며 햇불 같은 두 눈을 가진 두 사람이 침대 옆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잠이 깨어 일어났다.....그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나는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나에게, '안심하라. 에녹아! 무서워 말라.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그대를 하늘로 데려가려 한다.....그들은 나를 들어 올렸다....치솟는 불길로 공포에 떨었다....불길을 지나 수정으로 된 큰 집에 들어갔다....고상한 옥좌를 보았다....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거룩하신 주님이 그곳에 앉아 계셨다....

나는 구름을 몰아가는 하늘의 거대한 바람을 보았고 번개와 우박을 저장해 둔 창고를 보았다....거대하고 무한한 별들의 무리를 보았다. 사람 가운데 누가 별들의 회전과 입구들을 보았던가? 천사들마저 그 숫자를 모르지만 나는 그 모든 이름을 기록했다. 나는 태양의 둘레를 측량하고 그 광채를 측량하고 시간들을 헤아렸다....나는 땅 위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sup>3)</sup>

"와, 정말이구나!! 어디 이리 쭉봐."

신희가 빼앗듯이 책을 낚아챈다.

"내가 지금 읽은 것은 밑줄 친 부분만 읽었어. 빌려줄 테니 천천히 찬찬히 읽어보라구."

신희가 책을 펴서 우선 목차를 훑어보니 구미가 땡기는 제목들이다. 성서 외경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골 군청소재지에서 그런 책은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꼭 찾아서 읽어보리라 생각했던 책이 아닌가!!

"그런데 야, 나 어젯밤에 도깨비불 봤다!!"

2) 아담의 6대손이며 죽지 않고 살았을 때 하늘로 갔다는 사람.

3) 문학수첩 간 '숨겨진 성서'에서 인용.

"도깨비불? 요새 도깨비불이 어디 있어?"

"정말이야!! 2층 내 방에서 내다보면 뒷산 마루가 다 보이잖니? 근데 어젯 밤에도 그젯밤에도 뒷산 중턱에 도깨비불이 떨어지는 걸 봤다니까?!!"

"정말이니?!!"

"정말이라니까!! 혹시 UFO인지두 모르잖니?"

"그래, 요새 도깨비는 없을테고, 아니 옛날 사람들이 UFO의 반사광을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넌 UFO를 본 거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저께 밤에는 긴가민가해서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또 보았거든. 하필 이 책을 읽다가 잠시 어깨도 펼겸 창밖을 내다봤을 때 깜깜한 뒷산 중턱에 꽤나 큰 도깨비불이 지그재그 춤추듯이 내려앉는 것을 똑똑히 본 거야!! 그 후에는 숲에 가려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밝은 빛이 숲속에 번지는 것을 보았지. 그렇게 깜빡이는 반딧불처럼 한 몇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떠올라 하늘 높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 즉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넌 어디 있었니? 집에 없다고 하시더라?"

"난 어젯밤에도 여기 있었어. 아예 내 책상을 여기다 갖다 놓을까 생각중이야. 여기 올라오면 머리가 뻥하니 뚫리고 맑아지거든. 근데 얼른 사진이라도 좀 찍어두지 그랬니?"

"그 생각까진 못했어. 저게 정말 UFO가 아닐까, 하고 흥분하기만 했지. 어찌면 오늘밤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오늘밤에 저 뒷산에 미리 올라가 있을까? 카메라도 가지고? 너나 내가 UFO에 대해서 이렇게 몸달아 있으니 일부러 우리 앞에 자기네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마음먹은 것은 아닐까?"

"네 상상력두 훌륭하지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우리 꼭 가보자. 그게 몇시쯤이었는데?"

"열시쯤이었어. 내가 있다가 아홉시 반쯤에 이리루 올께."

"한밤중에 어디 가느냐고 하시면 어찌지?"

"다방에서 누구 잠깐 만난다고 하면 되잖아? 학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든가."

"그러면 되겠다."

둘이는 신바람이 나서 손뼉을 마주친 후 헤어졌다. 정태는 약간 불편한 다리지만 익숙하게 층계를 내려가고 신희는 그가 갖다 준 책을 열린 펴든다.

그러나 책보다 오늘 밤에 만날 지도 모르는 UFO 생각이 앞지른다. 밤에 나돌아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부모님을 속이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십년 전만 해도 조용하고 소박하기만 했던 이 마을에 언제부턴가 다방이 들어서고, 몇집 건너 한 대씩 자가용이 생기고, 내년에는 저 건너편 개울가 메밀밭에 러브호텔도 들어선단다.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소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시골 조용했던 동네에 달갑잖은 도시문명이 스며드는 데 대해서 몹시 못마땅해 하시는 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신희는 다시 책을 펴든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정말 UFO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을 조린다.



## < 2 > 첫 번째 만남

정태가 주고 간 <숨겨진 성서>를 읽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는데 아래서 어머니가 소리친다.

"신희 거기 있니? 내려와 점심 먹어라."

"예. 곧 내려갈게요."

신희가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태한테서 전화가 온다.

"나야. 놀라지 마!. 나 지금 뒷산에 갔다 왔는데 틀림없는 UFO를 발견했어!!"

"U....아니, 뭐라구?"

UFO 예기를 몹시 싫어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UFO라는 단어를 얼버무렸다.

"뒷산에서 UFO 흔적을 발견했단 말이야!! 우리가 책에서 본 그대로야. 까맣게 잔디가 탔더라구!!"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디가 그렇단 말이니? 어디 잔디가?"

"뒷산 그 도깨비불이 내렸던 자리 즙을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바로 영자네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이었어. 개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나란히 있잖니? 그 앞에 평평한 잔디밭에 잔디가 까맣게 탔드라니까?!!"

"그래?!! 그럼 틀림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무얼 어떻게 해? 오늘밤에 거기 가서 망을 보자구!! 땅거미가 내리면 우리 밭 원두막으로 나와. 후렛쉬 하나 가지구."

"알았어. 좀 일찍 가보잔 말이구나?"

"그래. 옛그제는 열시 즙에 나타났지만 오늘은 일찍 나타날지두 모르잖니?"

"맞아. 그 말이 맞다. 그 시간에 나갈게"

"OK!"

"어디서 누굴 만난다는 말이니?"

어머니의 질문이다.

"아, 정태 사촌형 정환이 있잖아요? 그 애가 오늘 잔디를 사러 아버지하고 우리 동네에 온대요. 잔디농사 짓는 김씨 아저씨가 삼촌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둘러댈 말이 떠올랐을까? 어쨌든 정말 정태가 제대로



본 것일까? 까맣게 탄 잔디를 발견했다구? 까만색과 초록색을 구별 못할 아이는 아니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양계장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돕는 것이 신희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우리나라 토종닭들이 매일 낳는 노랑고 탐스런 달걀을 줍는 재미는 신희가 자퇴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지난달에는 짚으로 만들어 준 옛날식 등지 안에서 암탉들이 알을 품더니 저마다 오루루 예쁜 노란 병아리들을 탄생시켰다. 그 노란 병아리들의 귀여운 모습이 라니!!.....

즐거운 마음인양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넓직한 닭집 청소를 어렵지 않게 해내는 다 큰 딸아이를 바라보며 박목사는 대견하기도 하고 불안도 하다. 저 아이가 정말 내년에 대학엔 갈 것인지 원.....

콧속에서는 콧노래가 나오지만 마음속은 꽤나 긴장해 있다. 저녁에 아버지를 속이고 밤외출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괜히 벌써부터 마음이 켩기고 죄스러운 것일까? 그래서 일부러 콧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봄날씨를 즐겼을 것이나 요즘 몇 년은 봄이 너무 일찍 가버린다. 5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콧등에 땀이 날 정도로 더운 날씨다. 땀 꽤나 흘리며 계사청소를 마친 후 나도 저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버지를 도와 달걀을 포장해야 하는 일이 저녁나절 내내 신희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 정태네 집에 간다며 집을 나선다. 그 사촌형인 정환이도 신희의 친구라는 걸 아시는 부모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눈치다.

"정환이를 만나 1시간만 놀다가 올게요."

"너무 늦지는 말아라."

교회 침탑 다락방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후렛쉬를 들고 집을 나설 때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찾아든 때다. 목사 사택을 나서 정태네 원두막으로 올라가는 길이 무섭지는 않다. 동네 뒤 산비탈에는 많은 밭들이 자리잡고 있고 여름 한철 제구실을 하는 원두막이며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자주 있기 때문에 어스름 저녁때의 신희의 행보를 이상하게 여길 사람도 없다.

원두막에 당도하니 정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는 준비성 있게 깡통음료수도 두 개 사가지고 왔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까봐 오징어두 한 마리 샀다."

"야, 안돼!! 오징어 냄새가 얼마나 역겹게 느껴지겠니?"

"그래? 참, 우리가 정말 외계인을 만난다면 이 냄새에 놀라 자빠질거다. 그치?"

둘이 마주보며 깔깔 웃는다. 봄날답지 않게 날씨는 초여름 날썬데 아직 모기가 없어서 다행이다. 원두막의 먼지를 대강 털어낸 후 넙죽 엎드려 배를 깔고 영자네 조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쪽을 향해 망을 볼 참이다. 주위는 삼시간에 어두워졌고 산비탈에 서로 몸을 비비듯이 서있는 밤나무와 도토리나무들이 어둠 속에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영자 조부모님 산소는 원두막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지만 UFO의 밝은 빛이 나타난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터였다. 정태가 오징어를 저쪽 구석으로 밀어놓으며 손에서 냄새라도 날까봐 짹짹 털고 두 손으로 턱을 고인다.

"몇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UFO가 자주 목격되었잖니?"

"그래, 가끔 뉴스에도 등장했는데 요즘은 뜸하지?"

"그래. 그들은 6.25 때도 우리나라 상공에 자주 나타나 미공군 조종사들을 놀라게 했다는데 주로 전쟁을 하는 국가나 그 장소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지?"

"응.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자하고 싸우나 그게 궁금했을 꺼야."

"UFO 세계의 인간들은 매우 평화롭게 산다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야, 그들도 우리처럼 전쟁으로 날을 새던 때가 있었다잖아. 그런데 우주여행을 할 정도로 문명이 발전하면 광활한 우주의 경이 앞에 서게 되고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될 거야."

"그리고 날만 새면 싸우던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겠지?"

"맞아. 우리 지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와야지. 오늘 만일에 우리가 UFO를 만나고 또 거기에 탄 외계인을 만나면 무얼 먼저 물어볼까?"

"글쎄. 난 우선 우주여행을 좀 시켜달라고 하구 싶어. 그들이 사는 세상이 가 보는 거지."

"와, 꿈도 크다. 그런 행운이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누가 아니? 우리가 기독교 신자니까 재림예수라도 나타날지?"

"재림예수가 정말 우주선을 타고 나타날까? 난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딱드리면 실감이 안 날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우주인이라고만 생각될 거야."

지난 일년 동안 돌이는 많은 UFO관련 서적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읽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반듯이 재림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UFO를 타고. 그런데 어른들은 왜 UFO 예기만 꺼내면 헛소리 한다고 핀잔을 주는 걸까?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30분을 기다려도 UFO는 커녕 도깨비도 모습을 보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좀 시들해진 두 사람은 요즘 공부는 어찌 돼 가는지, 자퇴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지, 등 지루한 대화를 연결하고 있다. 그런데!!

"왔다, 왔어!!"

"정말!! 야, 저것봐라, 네 말이 정말이었구나!...."

처음에는 좀 큰 별이라고 생각되었던 밤하늘의 한 빛덩이가 하강하면서 점점 커진다 싶었는데 금방 타원형의 모습을 드러내며 낙엽이 떨어지듯 지그재그로 하강하고 있다!!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백색 빛은 갖가지 색깔로 바뀌다가 뻑뻑한 숲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숲 사이사이로 새나오는 저 빛은 바로 그들이 저기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돌이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긴장한 눈빛과 몸짓으로 그쪽만 바라보다가 몸을 벌떡 일으킨다. 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참인 것이다. 그런데 이 건 또 웬 조화인가?!! 저만치 숲속에 있음이 분명한 UFO가 이쪽을 향해 강한 빛을 보내고 있다. 눈부셔 두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다가 정신을 수습해서 그 빛을 뚫어져라 응시하는데.....!!

그 빛을 타고 한 사나이가 걸어오고 있다!! 아니,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에 몸을 싣고 가볍게 날아오는 것 같다. 두 발을 움직이지 않고 지상에서 30cm 가량 뜬 채로 원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원두막 바로 앞에 내려선 이 사나이의 모습은, 서양인 처럼 키가 크고 얼굴 생김새도 서양인이다. 눈부신 빛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머리칼의 색깔은 검은 색이고, 옷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인들의 옷인 것 같다. 로마 역사물 영화에서 많이 본 그런 옷이다!!

놀라움과 반가움 때문에 두 사람의 가슴은 벌떡거리고 있고, 두 눈으로는 이 빛속의 사나이를 열심히 응시하고 있다.

"신희와 정태, 두 사람을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우리를 위해 찾아왔다고?!

"두 학생이 UFO와 성경의 기적적 사건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와, 그러면 정태의 예감이 맞아떨어진 거야. 너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어. 이 외계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 이리 내려와서 내 양손을 잡으세요."

역양은 부드럽지만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느껴지는 그 말에 두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원두막을 내려와 이 키 큰 사나이의 양쪽에 섰다. 이 사나이가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했지?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가 먼저 양쪽에 선 두 청소년의 손을 잡는다. 그런데....이건 또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우리가 날아가고 있잖아?!.....

그렇다. 세 사람은 무엇인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지금 UFO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 광선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견인력을 발휘합니다. 중력을 무력화시키면 우리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거든요."

그는 양 손에 지구의 두 청소년을 붙잡고 지상에서 약간 떠오른 상태로 나무들을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육체가 나무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곧 UFO 앞에 가벼이 안착한다.

얼떨떨한 채로 UFO를 바라보니 예상했던 대로 둥글납작한 접시형 우주선인데, 둥근 가장자리엔 커다란 구슬 같은 것들이 돌아가며 붙어있다. 스위스의 접촉자 빌리 마이어가 찍었다는 사진의 그 우주선과 비슷하게 생겼다.

"자, 안으로 들어갑시다. 제우스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제우스님이라고?!

그는 놀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UFO 가까이 가고, 저절로 열리는 문을 통해 먼저 승선하며 뒤따라오라는 손짓을 한다. 작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 보니, 직경이 20메타 정도 돼 보이는 이 우주선의 내부는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내부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의자 몇 개가 있

을 뿐이고 우주선의 굽어진 벽면에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사나이가 예기한 대로 의자에 앉아있던 또 한 사나이가 일어서며 두 사람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넨다.

"어서들 오너라. 내가 제우스고 저 안내인이 헤르메스라고 하면 놀라겠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 사나이기도 그렇고 저 사나이기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말을 잘하지?!!

"파동감지기를 이용하면 지구의 어떤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원두막에서부터 인도한 첫 번째 사나이의 말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생각도 다 읽고 있는 것 같다!!

"파동감지기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이고, 뇌에서 뇌로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도 있지. 열두 사도들이 성령감화를 받아 갑자기 외국어를 했다는 성경 예기가 있지? 성령감화란 텔레파시에 의한 정보전달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구나....

"나무 숲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2천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가 벽을 뚫고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었지?"

그게 그런 현상이었구나!!.....

"그러면 두 분은 정말 제우스신과 헤르메스신인가요?!!"

정태가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한다. 원두막에서부터 여기까지 놀랍고 흥분되어 말문이 막혔던 두 사람이다.

"그렇다. 자, 우선 그 자리에들 앉아라. 우리 둘은 분명히 과거 신화시대에 지구에 살았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지구를 방문하고 있는 목적은 지구가 바야흐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인 듯이 놀랍다는 시선으로 두 우주인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쉽게 믿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현실감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시간여행도 준비되어 있다."

"시간여행을요?!!"

"그렇다. 두 사람이 궁굼해 하는 성경 속의 기적적 사건들, 그리고 과거 신화시대로도 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과거의 시대, 즉 모세의 홍해기적이거나 예수님의 승천 같은 기적들을 재현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지. 이 우주선이 그 시대로 안내할 것이다. 이 우주선은 바로 타임머신이니까."

타임머신이라고?!!

이 사람이 과거의 제우스 신이었다고?!!....

정태와 신희는 UFO에 대단한 흥미를 느끼고 거의 모든 뉴에이지 서적을 사서 읽었다. 둘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입학 자격을 따기로 결심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영향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지구 역사가 뉴에이지 서적들이 말하는 그것과 많이 다를 뿐 아니라 뉴에이지 메시지들이 전하는 지구 바깥의 세계, 즉 우주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 광활한 우주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우주인들도 있다는데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대인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은 내가 과거의 제우스였고 이 사람이 헤르메스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치 않는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본격적인 담론에 들어간다.

"지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구 지도자들의 공포심 때문에 UFO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어온 것이다. 여기까지는 너희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예. 저희는 UFO에 관한 거의 모든 책들을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접촉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의 이 만남은 지구인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늘의 뜻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하늘의 뜻에 의해서?....

제우스라는 이 사나이는 그리스 신화집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

다. 곱슬거리는 긴 머리털과 턱수염이 마치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신화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UFO 안에 있는 것 아닌가?.....

“대부분 신화는 교육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다. 지구의 어린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듯이 신화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던 지구 인류를 위한 장난감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상상력을 키운다. 신화는 그렇게 지구 인류를 위한 상상력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만남과 자신이 제우스라고 한 저 사나이의 말들.....!!

그러는 사이에 헤르메스라는 사나이가 이 작은 우주선의 벽쪽으로 다가가더니 어디서 꺼냈는지 음료수 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온다. 은빛 쟁반에 담겨온 글라스들은 크리스탈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음료수의 맛은 지구의 어떤 과일쥬스 맛 비슷하다. 그러나 향이 묘하고 맛은 달콤 씹싸름하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넥타라는 음료다. 우리가 지구에 살았을 때 즐겨 마신 음료지. 너희를 위해서 알콜 성분이 배제된 음료다.”

넥타의 맛을 음미하면서 우주선 안을 두루 살피는 지구의 두 학생을 위해 잠시 시간의 여유를 준다.

“너희 두 사람은 UFO 서적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구와 지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구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 모르고 있는 대중들에게 새시대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희 두 사람의 사명이다.”

이 휘황찬란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저 두 사람, 고대인 같기도 하고 미래인 같기도 한 저 두 사람의 얼굴과 표정은 아무래도 신화시대의 그런 사람들 같지는 않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는 지구와 지구 태양계가 한 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우주의 바다를 여행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선 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지?”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주의 모든 별들은 상호 미치는 중력적 영향에 의해서 쉬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렇게 별들이 우주의 바다를 여행하는 동안에 별에 사는 생명체들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특히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자신들이 발붙이고 사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느끼면서부터 진화의 첫발을 내디딘다. 그 전의 인간은 원시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원시인이어야 할 그 시대에 이상하게도 철학자들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를 비롯해서 피타고라스, 스풀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뛰어난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었지.”

“그래요. 코페르니쿠스를 선두로 해서 하늘의 별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저희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리스에 살고 있을 때 동양에서는 단군신화 시대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반인반양의 신이 단군신화를 탄생시킬 주역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리스어 ‘판’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체라는 뜻도 되지. 즉 ‘판’신은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책임진 캐릭터로 지구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아니 그런데, ‘판’신이 단군신화를 탄생시켰다고?....

“나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서양 신화를 위해 지구에 왔지만 ‘판’신은 서양과 동양 모두의 신화시대를 책임진 존재였다. 그래서 반인반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은 서양을 대표하는 종교인 기독교의 상징 아니냐?”

그렇긴 하지만?.....

신화와 정태는 뜻밖의 신화 해석에 어리둥절하는 표정이다.



“‘판’신에 관한 이야기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에 잠깐 등장하고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환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인도에 가서는 인드라신으로 살기도 했지.”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헤르메스 신이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자유자재로 왕래했다고 하지? 신들의 순간이동 기술을 동양에서는 축지술이라고 불렀다고 알고 있는데?”

“예. 동양의 고대 신들은 축지술로 먼 거리를 손쉽게 넘나들었다고 해요.”

“신들의 그런 초능력은 5차원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능력이다. ‘판’신은 그런 능력으로 그리스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에서도 활약했던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신에게 ‘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구나.....

“그러면 대부분 지구인들이 원시인으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태어나고 또 동양에서는 단군신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예.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백가쟁명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철학자들이 태어나 자신의 사상을 피력했고 인도에서도 우파니샤드나 불교철학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생각되곤 했어요. 고대의 철학과 사상들이 현대의 그것에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 철학과 사상이 고대의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고대의 그것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의 철학과 사상이 원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철학과 사상을 탄생시킨 존재들이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랬군요.”

“저희도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서는 4차원이나 5차원 우주인들이 순간이동 기술에 의해 3차원 세계에 발을 디딘다. 그러나 3차원 세계 여성의 자궁을 이용해 3차원 인간으로 탄생하는 기술도 있다. 기술이라기보다 환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차원 세계에 태어난 우주인들은 전생에서 축적된 지식과 영혼적 연륜이 있어 시대를 앞서가는 지구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구나.....

말을 마친 제우스라는 우주인은 남긴 넥타를 마저 마시며 학생들에게도 권한다. 놀랍고 흥미진진한 만남에 혼을 빼앗겨 마시다 만 달콤한 넥타를 남기지 않고 마신다. 이것이 고대의 신들이 마셨던 음료이고 현재는 우주인들이 지구의 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음료라고 한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다음번의 만남에서는 시간여행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리스 시대로 여행하는 것이다.”

“시간여행을요?!!”

“그렇다. 이 우주선은 타임머신이라고 아까 말했지?”

“그러면 정말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스 시대로 갈 수 있단 말씀인가요?”

“그렇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라파엘의 그림 중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지? 그 아테네 학당으로 시간여행을 할 것이다.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도 5차원 우주인이 3차원 지구에 태어나 살았던 케이스였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구나.....

“오늘의 만남은 갑작스런 것이었기 때문에 흥분되고 머리정돈도 잘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매주 마다 만남이 있을 것이다. 어떠냐? 이러한 만남이 일상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

“물론입니다. 부담은커녕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자.”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앞장서 문으로 다가가자 우주선의 문이 먼저 열린다.

세 사람이 땅으로 내려와 섰고, 제우스라는 우주인은 우주선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든다.

헤르메스가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약간 공중에 부양된 후 빛의 도로를 날아서 원두막까지 데려다 준다.

아까는 얼떨결에 낫선 방문자의 손에 잡혀 우주선 쪽으로 날아갔지만 다시 원두막으로 돌아올 때는 약간의 안정감을 얻었기 때문일까? 놀라움은 사라지고 신나는 기분으로 날아 원두막 앞에 내려섰다.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을 것이지만 담당자는 바뀔 것입니다. 본인과 제우스님 대신에 다른 우주인들이 학생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먼저 텔레파시 접촉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좀 긴장감을 느끼고 머리의 이마 부분이 선뜻해지는 감이 들 것입니다. 그때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마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말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텔레파시라는 것이지요. 지구인들은 텔레파시를 송신하는 능력이 잠자고 있지만 수신하는 능력은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그 텔레파시 수신능력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방법을 이용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 적당한 시간을 골라 텔레파시를 보낼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나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빙긋이 다정한 미소로 한 번 더 인사한 후, 빛을 타고 UFO로 돌아가고 있다!!

그 빛은 곧 사라지고 두 사람의 주변엔 깜깜한 어둠만이 남았다.

준비해 왔던 후렛쉬를 켜니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다. 두 빛의 광도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우주선이 있었던 그 쪽을 바라보니 오색으로 번쩍이던 우주선이 숲을 떠나 하늘로 상승한다 싶었는데....삼시간에 깜깜한 하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자신들이 방금 저 우주선에 승선해서 자칭 제우스라는 우주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란 가슴을 서로 달래기라도 하듯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이제서야 희열을 느끼며 손뼉을 마주친다.

짹, 짹-!!

"하! 우리가 과연 UFO와 그 우주인을 만난거야!"

둘이는 온 동네가 들리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지만 꼭 참고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향하며 벅찬 감정을 정리하던 신희가 하늘을 향해 후렛쉬 불빛을 흔들며 본다. 하늘을 날고 싶은 기쁨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만 있을 수는 없어서다. 그런데 정태도 같은 감격을 하늘을 향해 발산시키고 있었나보다. 두 사람이 휘두른 후렛쉬 불빛이 하늘에서 만나 춤을 춘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